

## 황문근용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의 핏뇨기에서 발생한 고칼슘혈증 1예

국립경찰병원 내과 임수진\*, 김영옥, 이승희, 박상준, 김윤권, 김소연, 김영중, 조민구, 이권전

황문근용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에서 고칼슘혈증은 대부분 이뇨기에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핏뇨기에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 증례 보고된 예는 없었다. 저자들은 최근 황문근용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입원 치료 도중 핏뇨기에 발생한 고칼슘혈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0세 남자환자가 혼련 도중 발생한 실신을 주소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대퇴부에 압통과 동반된 종창 외에 이상 소견은 없었다. 타 병원 방문 당시에 시행한 검사에서 CPK 35,800 IU/L, BUN 40.0 mg/dL, Cr 2.9 mg/dL, Ca 4.3 mg/dL, P 16.2 mg/dL, Na 142 mEq/L, K 7.0 mEq/L 의 결과를 보여 황문근용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진단되었고, 이 후 신기능의 악화 소견을 보여 3차례의 혈액투석 후 10일 만에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본원 방문 당시에 일반 혈액 검사는 WBC 10,000/μL, Hb 11.1 g/dL, Hct 32.5 %, PLT 378,000/μL 이었고, 생화학 검사는 BUN 106.9 mg/dL, Cr 9.90 mg/dL, GOT 164 IU/L, GPT 279 IU/L, CPK 4524 IU/L, Ca 8.2 mg/dL, P 8.2 mg/dL 이었다. 환자는 혈액투석 치료하던 중 지속적으로 양쪽 다리에 심한 쇠약증세를 호소하여 입원 11일째 시행한 검사에서 Ca 13.1 mg/dL, P 10.8 mg/dL 의 결과를 보였다. 당시 하루 소변량이 400ml 미만의 핏뇨기였으며 이는 입원 13일째까지 지속되면서 Ca 17.6 mg/dL, P 10.3 mg/dL 까지 상승하였다. 입원 14일째 하루 소변량이 550 ml로 핏뇨기 상태에서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저칼슘 투석액으로 3 차례 혈액투석 후 입원 19일째 Ca 9.4 mg/dL, P 4.5 mg/dL 로 정상화 되었다. 현재 입원 75일째로 신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Ca 10.8 mg/dL, P 6.7 mg/dL 로 고인산혈증을 보여 약물투여하면서 추적 관찰중이다.

## DIC와 유사한 혈액응고장애를 보인 사교상 증례 1예

권오경, 이한규, 이영모, 최대은, 장윤경, 나가랑, 이강욱, 신영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로는 Agkistrodon속으로 분류되는 불독사(A. caliginosus), 살모사(A. blomhoffi brevicandus), 까치독사(A. saxatilis) 3종이 알려져 있다. 독사교상에 의한 합병증과 치료에 대한 연구 및 보고는 다수 있으나 전신 합병증인 신변변이나 DIC의 유형에 따른 임상양상의 기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증례는 혈소판 수는 정상이나 심한 섬유소원 저하에 따른 매우 특징적인 혈액응고장애와 황문근용해증 및 몽소염을 동반한 독사교상 환자의 경우로서, 특히 DIC 유사 혈액응고장애 중 임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드물게 보는 예이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평소 건강했던 23세 남자로 계곡에서 살모사 교상 후 1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2차병원에서 교상 2시간만에 항백독소혈청 주사를 맞았고, 토혈이 발생하여 교상 후 5시간만에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당시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17500/mm<sup>3</sup>, 헤모글로빈 14.4g/dL, 혈소판 269,000/mm<sup>3</sup>이었고, 일반화학검사상 AST 71 U/L, ALT 31 U/L, BUN 20.7mg/dL, creatinine 1.13mg/dL, LDH 1436 U/L, CK는 273 U/L로 경과중 2000 U/L까지 증가하였다. 소변검사상 잠혈 (3+), 적혈구 many/HPF, 백혈구 0-1/HPF이었으며, 혈청 myoglobin 2509ng/mL, 소변 myoglobin 10.8ng/mL이었다. 내원시 PT와 aPTT가 각각 120초이상으로 연장되어 있었고, 섬유소원이 내원시부터 0/mg/dL로 검출되지 않았으며, 섬유소분해산물 160ug/mL이상으로 증가해 있었다. factor VIII이 53.7%(60-140)으로 약간 감소되어 있었으며, antithrombin III와 protein C, S는 정상범위 이내였다. 제 2병일에 검사한 Tc<sup>99m</sup>-HDP 골주사검사상 우측하지 및 발 근육의 연부조직섭취 증가가 있었다. 환자에 대한 치료로 충분한 수분공급과 지속적인 FFP수혈치료를 하였고, 제 10병일째에 섬유소원이 45.9mg/dL로 검출되기 시작했고, 섬유소분해산물이 40ug/mL로 감소하였으며, 제 14병일째 섬유소원과 섬유소분해산물, PT와 aPTT가 정상화되어 퇴원하였다.

본 예의 경우 독사교상에 의한 DIC 유사 혈액응고장애 중 혈소판수의 감소없이 섬유소원의 감소로 인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FFP투여만으로 호전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 지역에 흔치 않은 독사교상의 임상양상으로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